

2002 임오년, 병원계의 기대



글 · 라석찬
대한병원협회 회장

기대와 희망속에 2002 임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병원계는 그 동안 병원과 정부 및 국민 사이에 형성됐던 불신을 말끔히 털어 내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의료복지 향상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영난 극복, 의료기관 본연의 소임 다하는 한해로

금년 역시 우리 앞에는 헤쳐 나가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으나 전국 회원병원의 합심협력을 토대로 과제들을 하나 하나 지혜롭게 풀어 나감으로써 병원계가 경영난에서 벗어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사상 초유의 건강보험재정파탄이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의사, 약사 등 병원 전문인력의 이직으로 진료공백이 초래되고 환자 감소로 진료수입이 줄어드는 최악의 한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해에 우리는 몇 가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병원급의료기관의 외래환자본인부담금을 하향조정 하였으며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한 원내조제료와 복약지도료를 산정할 수 있게 했고, 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개인병원 양도소득세와 법인병원 특별부가세가 감면되고,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추경예산 4,500억원을 편성하여 의료보호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습통을 댔습니다.

DRG포괄수가제와 의약품대금 직불제 시행을 유보시켰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300병상이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개설요건을 완화 시켰습니다.

환경변화 적극대처, 정부도 합리적인 병원계 건의 수용해야

우리 병원계는 의료정책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못지 않게 비상한 각오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을 이해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도 의료인이 전문직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원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병원협회는 올해 병원경영 활성화를 위해 병원 입원료 및 조제수가 조정 등 수가현실화와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선택진료제개선, 병원외래조제실 설치 등 의약분업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중소병원육성지원법 제정을 추진하여 중소병원 경영난 타개에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병원경영이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다함께 힘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2002

우리 병원계는 의료정책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못지 않게 비상한 각오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을 이해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도 의료인이 전문직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원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